

『몽실 언니』와 운명애*

원종찬**

〈차례〉

- 『몽실 언니』 출간 40주년
- 『몽실 언니』의 역사성과 기억투쟁
- 『몽실 언니』의 고전성과 운명애
- 『몽실 언니』의 새로운 위상

[국문초록]

본고는 출간 40주년을 맞이한 『몽실 언니』의 위상 변화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지니는 고전성의 자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몽실 언니』의 위상 변화는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작품은 민족의 분단과 전쟁으로 온갖 고초를 겪는 여자아이 몽실의 눈물겨운 삶을 그린 것이다. 군부독재정권 아래서 연재되고 출간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다. 1990년 TV드라마로 방영되고 나서 100만부 돌파, 100쇄 돌파를 잇달아 기록했으며, 수많은 비평적 조명을 통해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 명작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린이 독자는 몽실을 ‘인고·헌신·희생’의 대명사로만 바라보기 쉬운 탓에, 새로운 시대정신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비판이겠으나, 『몽실 언니』는 이와 비견될 만한 일본 전쟁아동문학에 걸려된 정치적 ‘불운성’으로 인해 작품의 역사성이 여는 작품과 다르다. 더욱이 권정생이 창조한 주인공 몽실은 ‘운명애’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현실안주형 인물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권정생은 이념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고자 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기운명을 사랑한 몽실의 인생을 그린 이 소설은 윤희주의 「서시」가 그런 것처럼 시대를 달리해도 변함없이 공명되는 고전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 시기 『몽실 언니』의 또 한 차례 위상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더 이상 초등학교 권장도서로서 이 소설이 제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는 『몽실 언니』에서 ‘아동문학’이라는 표지판을 떼어내는 것이 작품의 내포독자를 바라보는 더욱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한다.

[주제어] 권정생, 『몽실 언니』, 운명애, 전쟁아동문학, 역사성, 고전성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교수

1. 『몽실 언니』 출간 40주년

올해는 권정생(權正生, 1937~2007)의 소년소설 『몽실 언니』가 출간된 지 40주년이 된다. 이 작품은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온갖 고초를 겪는 여 아이 몽실의 눈물겨운 삶을 그린 것이다. 몽실의 삶에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본고는 출간 40주년을 맞이한 『몽실 언니』의 위상 변화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지니는 고전성의 자질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몽실 언니』는 시대의 산고를 겪으며 세상에 나왔다. 1981년 조그만 시골 교회 청년회지에서 연재를 시작했다가 1982년 더 많은 독자가 볼 수 있는 교회 여성잡지 『새가정』으로 옮겨서 연재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재가 중단되었다. 작품에 나오는 북한 인민군 이야기가 문제라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들어선 군부독재 시대였다. 결국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그 뒷이야기를 수정하면서 연재를 이어가야 했다.¹⁾ 1984년 연재가 끝나고 창작과비평사의 ‘창비아동문고’로 출간되었다. 창작과비평사는 1980년 계간 『창작과비평』이 강제 폐간 조치를 당한 바 있고, 1985년에는 부정기간행물로 『창작과비평』을 다시 펴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는 등 탄압을 받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원상회복된 진보 성향의 출판사였다.

『몽실 언니』의 위상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민주화 이전에는 『몽실 언니』에 좌경용공의 꼬리표를 붙이면서 어린이에게 잘못된 이념을 심어주는 ‘불온한’ 작품이라는 비판이 주어졌다. 일종의 금서 취급을 받은 것이다.²⁾ 민주화 이후에는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권하자’

1) 권정생, 「몽실 언니, 그 못다 한 이야기(개정 2판 머리말)」, 『몽실 언니』, 창비, 1984, 개정 2판 2000.

2) 작가와 작품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기사는 찾지 못했으나, 『경향신문』 1986년 1월 13일자 사설을 보면, “아동문학에까지 민중이데올로기가 침투”, “특정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으로 악용”, “특정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아동문학”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현실 비판 계열의 아동문학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려 들었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아동문학의 올바른 기능—어린이를 ‘유해문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경향신문』, 1986. 1. 13.) 실제로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몽실 언니』를

는 독서시민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몽실 언니』를 비롯한 권정생의 동화·소년소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1990년 『몽실 언니』가 TV 드라마로 제작 상영되어 수많은 시청자를 울린 뒤로, 100쇄 돌파, 100만부 돌파 등의 기록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때마침 한국 아동문학은 ‘중흥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전화(正典化)의 바람이 불었다. 마침내 『몽실 언니』는 활발한 비평적 조명을 통해 명작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동화작가 권정생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다. 이는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가 유난히 겹치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이주노동자의 자식으로 1937년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고국이 해방되어 귀국했으나 가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 권정생은 열아홉 살에 전신 결핵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떠돌이 구걸생활을 했다. 1968년 시골마을의 교회 문간방에 정착하여 작가생활을 시작했다.³⁾ 첫 번째 동화 「강아지 똥」(1969)은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이 비 오는 날 제 몸을 잘게 부수어 민들레꽃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평생 병고에 시달리던 그는 2007년 자기 책의 모든 인세를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대표작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에 그려진 주인공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그의 자전적 기록을 담은 책의 제목도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1986)였다. 사람들은 그의 아름답고 슬픈 운명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권정생과 『몽실 언니』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다 작가의 삶에 대한 존경심까지 더해져서 작품이 나온 지 십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재발견과 긍정의 평가 위주로 진행돼 왔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 온 이념적 대립 구도에 따라 『몽실 언니』를 여전히 불온시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아동문학계에서 대놓고 권정생의 작품을 비판하는 글은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⁴⁾ 이런 연유로 권정생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상과 초점을 조금씩

아이들과 함께 읽었다고 해서 ‘불온교사’로 낙인찍히는 일이 적지 않았다.

3) 이철지 편, 『권정생의 글모음·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종로서적, 1986, 참조.

달리할 뿐이지 거의 한 목소리 같은 양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한평생 병고를 겪어온 채 홀로 원고를 쓰는 일이 거의 전부였던 작가의 삶과 작품들이 큰 덩어리를 이루어 하나의 목표점을 드러내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몽실 언니』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역사적 가치와 리얼리즘적 특성을 주목한 것,⁵⁾ 둘째는 작가론과 연계된 기독교적 신앙세계를 주목한 것,⁶⁾ 셋째는 모성 및 젠더 문제를 주목한 것,⁷⁾ 넷째는 몽실의 시련 및 고통 극복 방식을 주목한 것 등이다.⁸⁾ 본고는

- 4) 2000년대로 와서 권정생의 작품에 남성 중심의 희생적 모성이 드러난다고 비판하는 페미니즘 시각의 연구가 나타나지만, 이를 연구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보완하는 '권정생 작품의 모성 및 젠더 문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정면 비판한 연구는 정혜원, 「한국동화에 나타난 '여자 어린이상' 연구: 김경록, 손연자, 권정생의 작품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산향, 「권정생의 『몽실 언니』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인문사회과학연구』 15-2,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이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보완한 연구는 선안나, 「몽실 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 『한국문예비평연구』 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진달래, 「권정생 '전쟁3부작'에 나타난 여성의 표상 연구—『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에 나타난 모성을 중심으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이 밖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몽실 언니』에 나타난 모성 및 젠더 문제에 관한 정면 비판하는 부정적 평가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창현의 견해를 소개한다. "사실 『몽실 언니』는 일종의 페미니즘 소설이다. 작가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작품에는 험하고 어려운 시절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온갖 부당한 일들이 조금도 미화되지 않고 매우 비판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가난한 여성들이 겪어온 이층의 질곡, 즉 거대한 사회 체제 속에서 초래된 소외와 주변의 남성들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두 가지 질곡을 모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은폐하는 것이 정말 반여성주의다." (김창현, 「『몽실 언니』의 반이념적 주체 지향과 비극 정신」,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3,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 56~57쪽).
- 5) 최지훈, 「권정생론—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사, 1991; 원종찬, 「속죄양 권정생」, 『어린어문학』, 2000, 11~12; 최희구,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전쟁수용작품 『몽실 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진, 「아동청소년문학의 정전과 권정생의 한국전쟁 3부작」,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박춘남, 「권정생 한국전쟁 소년소설에 나타난 리얼리즘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6) 장여숙, 「권정생 동화 연구: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엄혜숙, 「권정생 문학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남우희, 「권정생 문학에 관한 기독교적—탈기독교적 비평」, 성공회대 신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안정규, 「평화신학의 전망에서의 권정생의 문학작품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조미영, 「권정생 아동문학 연구: 죽음과 생명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7) 선안나, 「몽실 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 『한국문예비평연구』 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정혜원, 「한국동화에 나타난 '여자 어린이상' 연구—김경록, 손연자, 권정생의 작품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대 교

이들 선행연구를 일정하게 수렴하되 특히 몽실의 캐릭터 연구와 관계가 깊은 넷째 범주를 갱신·확장함으로써 오늘날의 위상 변화에 호응하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학 ‘텍스트’는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와 효과를 달리하는 하나의 ‘해석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출간 40주년을 맞은 『몽실 언니』의 가치와 위상이 한결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몽실 언니』의 역사성과 기억투쟁

『몽실 언니』는 한국전쟁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을 ‘역사적 수난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난 서사’나 ‘고난 극복기’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만일 재난이나 고난 극복의 서사였다면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기는커녕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는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몽실 언니』는 국가권력이 금기시한 ‘불온한’ 작품이었다. ‘빨갱이’와 북한 인민군을 다룬 일부 장면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민족분단이 초래한 전쟁이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미국과 소련의 군정통치를 시행했다. 좌우 이념 갈등을 빚는 가운데 1948년 서로 적대적인 남한과 북한 정부가 따로 세워졌으며, 급기야 1950년 동족상잔의 전쟁이 터졌다. 1953년 휴전선이 그어진 이래 민족분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 남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박산향, 「권정생의 『몽실 언니』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인문사회과학연구』 15-2, 부경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진달래, 「권정생 ‘전쟁3부작’에 나타난 여성의 표상 연구—『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에 나타난 모성을 중심으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8) 강민경, 『『몽실 언니』에 나타난 고통의 양상과 그 극복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한양아, 「권정생 서사문학 연구—‘시련’을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이근영, 『『몽실 언니』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삶』, 『한국아동문학연구』 28,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김창현, 『『몽실 언니』의 반이념적 주제 지향과 비극 정신』,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3,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

북한 분단체제는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공히 상대의 위협을 구실로 내부 비판세력을 제거 또는 탄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 독재정권은 현실비판의 목소리를 적과의 내통으로 간주했다. 남한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반공교육을 의무화했다. 전쟁은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낳게 마련이다. 오랜 기간 휴전 상황임에도 정권은 상대의 악마적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의 전쟁 기억을 동원했다. ‘가해자=북한 공산군’이라는 반공주의가 국가의 공식적인 전쟁 기억이고, 이와 다른 전쟁 기억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권정생은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전쟁 이야기를 썼다. 여자아이 몽실이 겪은 전쟁 이야기였다.

『몽실 언니』는 소제목과 함께 총23장으로 구성돼 있다. 작가는 1장에 앞서 해방 직후의 상황과 주인공 몽실을 소개하는 프롤로그를 붙여 놓았다. 몽실네는 해방이 되고 일본에서 들어온 ‘귀국 동포’로서 흔히 ‘일본 거지’라고 불렸다는 것, 몽실도 그 거지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정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주 집을 나갔고, 어머니 밀양댁은 딸 몽실과 아들 종호를 데리고 굶기도 하고 구걸해 먹기도 했다. 몽실의 동생 종호는 이름 모를 병을 앓다가 죽는다. 작가는 그 무렵의 마을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 마을 저 마을 청년들은 대여섯 명 혹은 열 명씩 무더기를 지어 주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날, 마을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발각 뒤집혔다. 총을 든 경찰이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⁹⁾

새 나라를 건설하자고 바빠 움직이는 마을 청년들, ‘붉은 깃발’로 상징되

9) 권정생, 『몽실 언니』, 1984, 개정 4판 14쇄, 창비, 2015년, 13쪽. 이하 본고의 작품 인용은 이 책의 쪽수임을 밝힌다.

는 진보 성향의 집회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압축적이거나 ‘본 대로, 들은 대로’ 서술하려는 담담한 어조다. 이런 어려운 때에 몽실에게도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첫 장이 열린다.

1장부터는 몽실을 초점화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머니 밀양댁이 몽실의 손을 이끌고 도망치듯 살강 마을을 떠나는 장면이다. 1장부터 6장, 즉 전쟁이 터지기 전에 벌써 어린아이 몽실에게 기구한 운명의 굴레가 씌진다. 몽실은 새아버지 김 씨네로 가서 동생이 태어나자 온갖 학대를 받고 힘에 부치는 일을 한다. 또한 김 씨의 폭력으로 어머니와 함께 넘어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다. 고모가 찾아와서 다시 아버지 정 씨네로 돌아오는 데, 이번에는 새어머니 북촌댁을 모시게 된다. 다행히 북촌댁은 몽실에게 잘해주지만, 허약한 몸에 병까지 앓고 있다. 7장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북촌댁은 동생 난남을 낳곤 세상을 뜬다. 8장부터는 전쟁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몽실이 동생 난남과 전쟁터에서 몸을 다치고 돌아온 아버지 정 씨와 함께 굶어죽지 않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21장에서 아버지가 죽고, 22장에서 동생 난남은 부잣집 양딸로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어린아이 몽실의 이야기고, 마지막 23장은 30년이 훌쩍 지난 뒤 어른이 된 몽실이 결핵으로 요양원에 있는 동생 난남을 면회하고 절뚝거리며 산모통이를 돌아가는 장면이다.

23장은 ‘가파른 고갯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으며, 작품 전체로 보자면 에필로그 격의 뒷이야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은 ‘몽실의 인생’ 이야기라는 점이 부각된다. 독자는 22장과 23장 사이의 사연들, 곧 혼자 된 몽실이 어떻게 살면서 곱추 남편을 만나 가족을 이루고 동생들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헤아려볼 것이다. 결핵을 앓는 난남을 면회하고 돌아가는 마흔 살 넘은 몽실의 앞날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은 어린 몽실에게 불어닥친 일들 가운데 특히 이편저편 선명하게 가르지 않은 장면을 불온시켰다. 1949년 가을 밤에 산에서 지내는 공비들이 마을에 내려온 일, 1950년 여름에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온 일, 다시 전세가 바뀌어 국군이 마을에 들어온 일 등 몽실이 겪은 일들은

그동안 국가권력이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까치바위골 앵두나무 집 할아버진 어찌 됐어요, 아버지?”

“아마 돌아오시기 힘들게 됐나 보더라.”

“왜 못 오시나요?”

“아들이 있는 곳을 대 주지 않으면 풀어 주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걸 곧이듣니?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빨갱이한테 떡을 해 주고 닭을 잡아 주다니, 그건 백 번 천 번 잘못된 거야.”

“아버지!”

몽실이 정 씨 얼굴을 쳐다봤다. 어두운 움막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 해 드리고 닭을 잡아 드릴 거예요.”

“…….”

정 씨는 입을 꼭 다물었다. (66쪽)

앵두나무 집 할아버지는 ‘공비’ 아들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뒤 소식을 모른다. 위의 인용은 몽실이 공비를 막는 경비 일에 동원된 아버지의 움막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몽실의 항변에 아버지 정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앵두나무 집 할아버지는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에도 면장, 경찰과 함께 끌려나왔다가 간신히 죽음을 면하는데, 인민군이 쫓겨 가고 국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부역죄로 잡힌 마을 아저씨들과 함께 시체로 돌아온다. 작가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다뤄지는 전쟁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다.

“몽실아, 국기 달아라. 높이높이 달아야 한다.”

남주네 아버지 박 씨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알려 주고 있었다. 박 씨 아저씨는 인민군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아이들은 동네 창고에서 배운 인민 애국가를 부르고 다녔다.

“아아 위대한 수령님 김×× 장군…….”

몽실은 기를 끄집어내었다. 그건 지난번 삼일절에 내다 걸었던 빛바랜 태극기였다.

(중략)

그때 비탈길로 누가 달려오는 기척이 났다. 험뻑거리며 뛰어오는 사람은 인민군 청년이었다. 청년은 방금 몽실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걸린 장대를 뉘아채듯이 쓰러뜨렸다.

(중략)

“박 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국기는 이게 아니고 인민 국기인 거야.

“…….”

몽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에게 박 씨 아저씨가 갖다 준 붉은 인민 국기를 깜박 잊고 태극기를 달았던 것이다.

“너 큰일 날 짓을 했어. 이런 짓 하면 끌려가서 죽는다. 아니?”

몽실은 새파랗게 질렸다. (108~109쪽)

위의 인용은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국기를 달라는 말을 듣고 태극기를 달았던 몽실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장면이다. 다행히 인민군 청년은 누가 볼세라 얼른 태극기를 인민 국기로 바꿔달도록 조치한다. 이 장면이 실린 곳에 작가는 ‘이상한 인민군’이라는 소재목을 붙였다. 태극기와 인민 국기의 차이로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 처한 몽실을 인민군 청년이 어리다고 봐 준 것일 테지만, 잔혹 무도한 ‘북괴군’의 이미지에서 비껴나 있다. 작가가 ‘이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부터가 고정관념을 의식한 것이기도 한데, 기존 관념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면임에 틀림없다.

“할머니 안 계세요?”

몽실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를 왜 찾니?”

군인 하나가 나왔다. 몽실은 자세히 봤다. 틀림없는 인민군인데 모습이 달랐다.

‘여자 인민군?’

몽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안 계시면 가겠어요.”

“아니야, 할머니 곧 오신다. 들어와 기다려라.”

(중략)

여자 인민군은 구석에 놓인 배낭에서 무언가 꺼내었다. 쌀과 미숫가루가 나왔다. 그걸 얼마쯤 덜어 가지고 바가지에 담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여긴 지금 긴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있을 수 없단다.”

여자 인민군은 골목길을 나오자 몽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는 나란히 비탈길을 올라갔다. (116~118쪽)

위의 인용은 몽실의 사정을 들은 어느 여자 인민군이 배낭에서 쌀과 미숫가루를 내와서 함께 몽실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다. 이 여자 인민군은 몽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을 이해하고 앞날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군인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 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

몽실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야,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귄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러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121~122쪽)

‘최금순’이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 인민군은 헤어질 때 식량을 좀 두고 갈 테니 난남이 잘 키우고 깨끗하게 살라고 당부하면서 뺨을 맞댄다. 몽실은 ‘사람’으로 만나면 서로 죽일 수 없다는 이때의 깨달음에 기대어 ‘이순철’이라는 소년 인민군(의용군)을 만나 대화하던 중 “사람을 죽이는 인민군도 같은 반동이야!”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다. 몽실이 눈에 파아랗게 불길기 올라 ‘나 같은 아이도 죽여보라’고 다그치자 군복을 입은 소년은 끝내 어머니를 부르면서 흐느낀다. 몽실과 소년병의 다름은 동족상잔의 또 다른 일면을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이다.

한국전쟁이 특히 비극적인 것은 전선이 몇 차례 오가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좌우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민이 많았다는 데 있다. 한쪽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진실을 호도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화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권정생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몽실 언니』는 ‘강요된 침묵’을 깨는 하위자의 목소리이자 공식적인 전쟁 기억에 균열을 내는 목소리였다. 아무리 좌경용·공분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몽실의 항변, 몽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착한 북한 인민군’의 등장, 북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뿐 아니라 남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도 선량한 마을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고 해서 『몽실 언니』는 ‘불온한’ 작품이 되었다. 전쟁터에 끌려간 몽실의 아버지가 북한 군인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문을 당해 상이군인이 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작품이 결코 아님에도 반공주의 정권은 공식 기억

과 다른 전쟁 기억이 섞이는 것을 결코 허용하려 들지 않았다.

마을에 북한 군인이 들어오면 인공기를 내걸고, 남한 군인이 들어오면 태극기를 내걸어야 살 수 있는 분단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북한 적대적 공존관계가 지속되는 한, 반공주의는 불의한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기억투쟁’과 ‘역사전쟁’이라는 갈등 상황이 나라 안팎으로 뒤엉켜 지속되고 있다. 『몽실 언니』를 금기시·불온시하는 시각이 엄존하는 작금의 상황은 이 작품의 역사적 현재성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몽실 언니』의 독특한 위상은 한때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일본 전쟁아동문학의 ‘명작’들과 다른 점이다. 일본 전쟁아동문학은 패전 직후부터 즐기치게 이어져 왔으며, 작품성이 뛰어난 것들부터 가열하게 전쟁 책임을 묻는 것들까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¹⁰⁾ 그럼에도 일본 전쟁아동문학의 주류는 피해의식 두드러진 것들이라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판이 즐기치게 제기돼 왔다.¹¹⁾ 『몽실 언니』와 비견되는 쓰보이 사카에(壺井栄)의 『스물네 개의 눈동자』(1952),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如)의 『반딧불이의 묘』(1968),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의 『오싱』(1983) 같은 ‘명작’들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가운데 아동문학으로 발표된 것은 『스물네 개의 눈동자』뿐이지만, 모두 전쟁을 겪는 어린이를 그린 것이고, 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어 일본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이 3편은 해외에서도 호평 받은 세계적인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그만 어촌 분교의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린 『스물네 개의 눈동자』는 철부지 같은 신출내기 오오이시 선생님의 캐릭터가 빛난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자 선생님과 열두 명의 아이들은 온전할 수 없었다.

10) 서기재, 『시카타 신과 전쟁아동문학』, 엘피, 2017; 김영순, 「일본 전쟁아동문학의 쟁점」, 『창비어린이』 85, 2024년 여름호, 참조.

11) 하세가와 우시오(박종진 옮김), 「일본 전쟁아동문학에 없는 것」, 『창비어린이』 8, 2005년 봄호; 서기재, 「패전 직후 일본 아동문학의 경향과 ‘전쟁아동문학’」, 『일본어문학』 55, 일본어문학회, 2011, 참조.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어디론가 팔려가고, 어이없이 병들어 죽고……. 영상미가 뛰어난 애니메이션 『반딧불이의 묘』도 네 살짜리 세츠코가 끝내 굶어죽는 장면에서 눈시울을 적신다. 『오싱』은 대하장편으로 이어지면서 성공신화의 통속성이 짙어지지만,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다룬 부분은 다른 두 작품과 비슷한 효과를 빚는다. 이를테면 러일전쟁 때 남의 집에 팔려간 어린 여자아이가 도둑누명을 쓰고 눈보라 속을 헤매는 장면은 연기와 영상미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에 열광한 일본 국민은 왜 전쟁 책임을 부인하면서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보수당 체제를 넘어설 꿈조차 꾸지 못할까? 세 작품 모두 반전평화의 메시지가 뚜렷하고 인물의 진실성이 진하게 우러나오고 있음에도 독자와 감상을 끝내고 나면 신기루를 본 것처럼 주제의식이 사라진다. 한마디로 ‘불온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생한 비극적 전쟁 체험조차 가상 체험 비슷한 역사적 진공 상태로 그려진 면이 없지 않다. 독자는 일종의 재난 영화를 보듯이 위험지역 바깥에 존재한다. ‘벗어났으니 다행이다!’ 수용자에게 이런 안도감을 전하는 일본 전쟁아동문학의 명작은 전쟁 책임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결함일 것이다.

『몽실 언니』는 위험지대를 벗어났다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멀다. 이 작품의 비극성은 끝나지 않은 지속성을 띠고 있다. 언제든 역사적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빨갱이 사냥’ ‘종북좌파 몰이’와 대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모두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전쟁 기억 외에는 반국가 사범으로 단죄하려 든다. 이런 의미에서 『몽실 언니』의 역사성은 현재적 가치를 띠고 말할 수 있다.

3. 『몽실 언니』의 고전성과 운명애

『몽실 언니』는 일본 전쟁아동문학에 걸여된 불온한 역사성이 뚜렷하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고전이 되기 어렵다. 『몽실 언니』의 어떤 점이 독

자를 사로잡는 것일까? ‘몽실’은 한국문학이 창조한, 독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주요 캐릭터 중 하나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권정생의 소년소설 3부작, 곧 『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1986), 『점득이네』(1990) 세 편 모두 역작이지만, 독자가 『몽실 언니』에서는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인물의 삶을 읽게 된다면 『초가집이 있던 마을』과 『점득이네』에서는 전쟁과 이념 대립의 참상을 먼저 읽게 된다.¹²⁾ 『몽실 언니』는 한 시대와 굳건히 마주선 주인공의 형상으로 우뚝하다. 『몽실 언니』가 널리 읽히고 또 오래 기억되는 가장 큰 힘은 몽실의 캐릭터성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몽실의 시련 및 고난 극복 방식’을 주목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몽실의 시련 및 고난 극복 방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인고와 헌신의 태도’다. 인고와 헌신의 주인공은 고난에 찬 민족사의 반영으로 지난 세기 한국 아동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내 · 헌신 · 희생’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몽실의 행실이 오늘날의 아동문학에서 과연 미덕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오는 주인공은 영웅적이거나 수동적인 인물로 수용되기 쉬운 만큼, 급변하는 시대현실로 인해 『몽실 언니』도 급속한 화석화(化石化)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몽실의 시련과 고난 극복 방식을 주목한 연구들은 독자 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상적 독자를 상정한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우선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문학의 고전’ 『몽실 언니』의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몽실의 캐릭터성과 내포독자의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몽실의 인내 · 헌신 · 희생적인 모습은 그계 전부가 아님에도 페미니즘 시각에서 혹독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페미니즘 시각의 과도한 비판은 일면적 파악이기에 점차 수정 · 보완되는 추세인데, 또 다른 문제는 몽실 행실을

12)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원종찬, 「속죄양 권정생」(『어린이문학』, 2000.11~12)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타적인 윤리적 올바름으로 파악함으로써 범인과 구별 짓는 영웅화의 맥락이 아닐까 한다. 여느 사람과 다른 몽실의 행실을 해명함에 있어서 윤리적 태도를 거론하는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추상적 ‘착한이표 주인공상’에 가둘 우려가 없지 않거니와 보통사람들과 구별되는 비범한 영웅적 주인공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작가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를 테면 “화해와 용서”,¹³⁾ “모성적 희생”과 “책임의식”,¹⁴⁾ “자신의 자유를 포기” “윤리적 주체의 초월성으로 극복”¹⁵⁾ 등을 표나게 강조하는 연구들에서 그런 인상이 짙게 풍겨난다.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몽실의 태도는 인성과 도덕심이라기보다는 ‘더 큰 원인(지배 권력과 강요된 이념)’에 대한 응시와 반발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작품의 사회성을 놓칠 수 없으며, 몽실의 삶에서 ‘보살핌’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었을지라도 몽실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 몽실은 세상에 의문을 품고 자기 길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¹⁶⁾ 요컨대 어두운 시대를 헤쳐 온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몽실은 영웅적이거나 수동적인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다.

“다리를 다친 건 내 팔자예요.”

13) 강민경, 앞의 논문, 204쪽.

14) 한양아, 앞의 논문, 목차 참조.

15) 이근영, 앞의 논문, 93쪽.

16) 이런 점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최근의 연구는 니체의 비극 정신과 초인 철학을 통해 『몽실 언니』를 살펴본 김창현의 「『몽실 언니』의 반이념적 주제 지향과 비극 정신」(『아동청소년문학연구』 33,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이다. 이 논문은 니체의 ‘운명애’를 키워드로 삼은 본고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바, 다만 ‘초인’을 키워드로 삼았다. 필자가 보기에 인물 분석이라든지 텍스트 인용과 해석에 있어서 니체 철학과의 정합성이 잘 맞아떨어지기에 전체적인 논지는 설득력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한 소녀가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몽실은 이렇게 위대한 여인이 된다”고 결론짓는 것에서 필자는 몽실과 이 땅에 사는 ‘민초’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김창현의 연구는 몽실의 뒤편이와 니체가 말한 ‘초인’ 개념과의 부합성을 논한 것일 뿐, “현실이 비극이었던 당시에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초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67쪽) “사람은 이렇게 위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70쪽)고 덧붙임으로써 논문의 취지가 몽실을 영웅시하는 맥락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몽실은 눈에 가득 끈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흘렸다.(71쪽)

몽실이 새어머니 북촌댁과 나누는 대화의 한 장면이다. 사소한 것일는지 몰라도 작가는 약간의 어색함을 무릅쓰고 ‘눈물이 뺨에 주르르 흘러 내렸다’가 아니라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흘렸다’면서 주체의 행위를 강조했다. 몽실의 입에서 튀어나온 ‘팔자’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이다. 몽실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과거를 떠나보낸다. 결코 거기 얽매어 지낼 바가 아니라는 뜻이. 이다음 6장은 ‘인생이라는 것’이라는 소재목을 달았다. 여기서 몽실은 새어머니와 야학에 나간다. 야학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76쪽) 몽실은 야학 최 선생의 말로부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도 과연 남의 꼭두각시놀음이 아닌, 제 스스로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언제든지 속게 마련입니다. 속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76~77쪽) 그날 밤 몽실은 북촌댁과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어머니, 인생이란 게 뭐예요?”

몽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북촌댁을 보고 물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하나 보더라.”

“팔자하고 비슷하군요.”

“비슷하기도 하지.”

“팔자도 먼저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아니어요. 팔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엄마가 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

“어머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괴롭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면 알게 될 게다.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최 선생의 ‘인생의 길’이란 말을 들은 뒤, 몽실은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 갔다. 자기의 일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그리고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봤다. (77~78쪽)

몽실의 관심이 지난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로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몽실은 자기에게 친엄마 이상으로 잘 대해주지만 병고를 겪는 북촌댁이 아기를 낳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다. 몽실은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썼다. 민족적·계급적·젠더적인 면에서 시대의 폭력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가르침과 깨달음의 순간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라는 북촌댁의 말, 그리고 ‘인생의 길’이라는 최 선생의 말을 들은 뒤로 몽실은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다. 자기 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 그리고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봤다. 몽실은 운명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 『몽실 언니』는 인내와 희생의 덕목을 강조하는 교훈적 이야기인 듯해도, 바탕은 인간을 움직이는 굴레를 벗어던지자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땅의 분단이데올로기를 비롯해서 여성·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폭력에 대한 순응과 외면이 아니라 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북돋는다. 어떻게 장애를 지닌 여자아이가 그토록 가혹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몽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운명애’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운명애(Amor Fati)는 철학자 니체가 창안한 개념이다. 니체 연구자 이상엽에 따르면, 근대의 ‘신의 죽음’ 현상은 허무주의를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니체의 운명애라고 한다. 따라서 니

체의 운명에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삶의 태도”로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과정 전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¹⁷⁾ 인문학 개념에 대해 천착한 서영채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있기에,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의식하려는 노력이 수반되는데, “운명에는 존재론적 불안에 대한 니체 고유의 해결책”¹⁸⁾이라고 언급했다. 서영채에 따르면 ‘운명’이라고 할 때의 ‘운명’은 전통적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리 정해진 인생살이의 행로 같은 것’과는 다르다. 그런 제3자의 시선이 아니라 1인칭 시선으로 자기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슬한 우연의 연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서의 운명으로 모습을 바꾼다는 것이다. 운명애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운명애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그에게는 가능한 최선의 것이었음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¹⁹⁾ 몽실이 보여준 삶의 태도가 이러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조금씩 빛깔과 무늬, 정도를 달리할 뿐이지 어려운 시기마다 이 땅의 슬한 민초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이기도 했다. 속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운명애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지향케 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간 내면의 한 속성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듯하다.

원래 운명애는 정확한 의미 파악이 다소 까다로운 철학적 개념이지만,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어휘일뿐더러 일상 용법으로도 자못 많이 쓰이는 편이다. 한국인에게는 교과서 속 운동주의 「서시」를 배울 때 한 번쯤 들어본 어휘일 수 있다.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

17) 이상엽, 「니체, 허무주의와 운명애」,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000, 351쪽.

18) 서영채, 「운명애: 인문학 개념정원2」, 『작가들』 70, 2019, 214쪽.

19) 서영채, 위의 글, 216~217쪽.

어가야겠다.”²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의 하나인 「서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가 바로 ‘운명애’였다. 팔자소관으로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주체적·적극적·의지적 태도이기 때문에, 서영채가 강조한 1인칭 시선으로 보자면 ‘인고·헌신·희생’과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몽실은 운수와 요행에 인생을 맡기는 순응주의자가 아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삶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다. 즉 자기 운명에서 결코 도망치는 법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예컨대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씩이나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몽실의 말에서 보듯이,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힘껏 부딪칠 따름이었다.

몽실은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질문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몽실은 줄곧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땃골 어머니 생각, 돌아가신 새어머니 생각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보았던 미군 병사와 여자를 생각했다. (…) 왜 여자는 남자한테 매달려 살아야 하는 걸까?”(186쪽)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검둥이 갓난아기를 보고 사람들은 “더러운 것, 화냥년의 새끼”라고 욕하면서 침을 뱉지만, 몽실은 그 아기를 치마폭에 감싸면서 “누구라도 배고프면 화냥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예요.”라고 항변한다.(190~191쪽) 전쟁과 가난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문제이지, 몽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끌어안고 삶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 의붓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세상을 떠나자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젓동냥을 다니고, 병든 몸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깡통을 들고 구걸하러 나선다. 몽실은 체념과 포기를 모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 운명을 걸어갔다.

‘그래, 난 앞으로도 이 절름발이 다리로 버틸 거야. 영득이랑 영순이랑 그리고 난남이를 보살펴야 해. 영득이, 영순이를 찾아갈 거야. 꼭 찾아갈 거야.’

20) 윤동주, 「서시」 부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깊은샘, 2011.

금년이네 집 현관엔 그날 밤에도 미군 병사의 군화가 놓여 있었다.

몽실은 그 시커먼 군화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하늘, 거기 어두운 곳에 별들이 반짝였다. 몽실은 이빨이 부딪치도록 몸을 떨었다. (278쪽)

어른이 된 30년 뒤로 뛰어넘기 전, 어린 몽실의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다. 동생 난남이 부잣집 양딸로 가고 홀로 남게 된 몽실은 ‘양공주’로 지내다 죽은 금년이네 거처로 돌아와서 현관에 놓인 미군 병사의 시커먼 군화를 노려보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별을 바라보며 추위에 몸서리친다. 시커먼 군화를 노려보는 행위는 자신과 식구들, 그리고 수많은 ‘금년이들’에게 불행을 안긴 더 큰 원인과 맞서려는 몽실의 꾀꾀한 태도를 보여준다. 나아가 몽실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서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현실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파른 고갯길’이라는 소재목을 붙인 다음 마지막 장에서 이 점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작품의 제목이 ‘몽실’이 아니라 ‘몽실 언니’인 것은 작가가 몽실에게 바치는 헌사의 의미 담겨 있다. 작가에게 ‘몽실’은 자신의 ‘어머니’였고, 이 땅의 ‘민초’들이었으며, 그들의 벗이자 옆집에 살고 있는 ‘인간 예수’였다. 이 작품에서 ‘몽실 언니’라는 호명은 에필로그 격인 마지막 장에 가서야 나온다. 30년이 훌쩍 지난 후, 결핵요양원에 입원중인 동생 ‘난남’을 면회하고 절뚝거리며 언덕길을 올라가는 중년아줌마 몽실의 뒷모습을 보며 ‘난남’이 입속말로 기도처럼 부른다. “언니……. 몽실 언니…….” (292쪽) 몽실은 결혼해서 어엿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와 같은 결말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몽실이 자기 삶은 고난으로 점철됐으니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겼을까? 자신이 살아온 길을 후회했을까? 자기 운명을 피하지 않은 몽실의 자존감이야말로 독자의 감동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크게 보아서 ‘권정생 · 「강아지 똥」 · 『몽실 언니』’는 하나로 겹치며, 이것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운명애’를 떠올리는 데 무리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자기 운명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는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와

힘을 북돋는 고전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4. 『몽실 언니』의 새로운 위상

『몽실 언니』는 한국전쟁이 주된 배경이지만 몽실의 인생을 그린 것이지 이념을 그린 작품이 아니다. 권정생은 이념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그리고자 했다. 앞서 「몽실 언니」가 역사적 현재성을 지녔으며, 인생 문제에 대한 고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이 시점에 『몽실 언니』의 또한 차례 위상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몽실 언니』를 20세기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작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오늘날 어린이가 실제로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아동문학이 주요 독자인 초등학교 대다수는 ‘인고·현신·희생’의 미덕을 예찬하는 ‘교훈주의’ 독서 관습에 붙들려 있기 쉬운 까닭이다.

사실 요즘 초등학교생은 자기 엄마아빠의 할머니 어린 시절 같은 이 작품에 거의 손이 닿지 않는다. 간혹 선생님이 권해서 읽더라도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죽음과 자기 뺨을 때리고 다리를 절게 만든 두 아버지를 겪고도 전쟁 속에서 찻먹이 동생을 키우고 친어머니의 두 동생까지 돌본 몽실이 정말 대단하다 (….) 몽실이에 비하면 자신은 참을성도 없고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반성”²¹⁾ 들을 기계적으로 쏟아낸다. 이런 독후감을 보고 책을 권한 교사는 “작가 권정생이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고마워하고 몽실이처럼 헌신하고 참을성이 있기를 바라는 이 작품을 썼을까”²²⁾ 하고 탄식했다. 현장 보고서 성격의 이 글은 오늘날에도 뜻 있는 교사라면 『몽실 언니』를 초등 6학년 교실에서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몽실 언니』가 제기하는 이 땅의 여성 차별 문제를 구석구석 함께 읽어낸 모범적인 독서교육 사례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초등학교생 스스로 『몽실 언니』을 읽고 난 뒤의 자연스

21) 조연수, 「지금 어린이 관점으로 『몽실 언니』 다시 읽기」, 『창비어린이』, 2024년 여름호, 10쪽.

22) 같은 곳.

러운 독서 감상은 크게 볼 때 인고·헌신·희생의 가치로 모아진다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몽실의 시련과 고난 극복 방식’을 주목한 연구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고 했는데,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살핀 논문을 찾아보았더니 키워드로 ‘용서’를 앞세우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이 논문은 “많은 사람들이 권정생의 『몽실 언니』를 아동문학 작품 중에 정전으로 여긴다. 몽실이는 자신의 삶에서 겪는 시련을 희생으로 이겨내는 위대한 인물이며 구도자적이고 모성적 면모를 지닌다. 그런데 이렇게 몽실이를 위대한 영웅으로 볼 경우에 아동 독자는 그 인물을 자신과 다른 먼 존재로 생각하여 인물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인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 뒤, “이 연구는 아동 독자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몽실이를 위대한 영웅이 아닌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여기고 몽실이가 용서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고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²³⁾ 몽실을 “위대한 인물” “구도자적이고 모성적 면모” “위대한 영웅” 등으로 바라본다는 전제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논의들을 요약한 숨길 수 없는 인상의 일면이다. 그럼에도 이를 대신해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앞세운 것 또한 어린이에게는 오십보백보가 아닐까 한다. 권정생의 기독교적 실천을 고려할 때 ‘용서’라는 키워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피억압자에 속하는 아이들에게 ‘참된 용서의 의미’를 가르치는 작품으로 『몽실 언니』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래도 위태롭다. ‘나다움’ 즉 자기존중심 및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이루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시대 과제로 안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용서의 가치는 어린이에게 관념적인 미덕으로 이해되기 십상일 것이다.

오늘날 『몽실 언니』의 주요 독자를 과거처럼 ‘초등학생’ 또는 ‘초등 고학년 이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은 『몽실 언니』를 읽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장르적으로 청소년소설이 분화돼

23) 김상환, 「아이들의 삶에서 아동문학 다시 읽기: 『몽실 언니』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9, 한국 문학교육학회, 2023, 7쪽.

나온 뒤부터 아동문학의 주요 독자를 초등학생까지로 보는 추세인데, 어린이를 둘러싼 시대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초등학생은 청소년과 달리 작품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자신을 이입해서 읽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런 점에서 『몽실 언니』를 ‘동화’라고 지칭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앞으로는 청소년 이상의 독자에게 적합한 작품으로 조정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몽실 언니』에서 ‘아동문학’이라는 표지판을 떼어내는 게 안타깝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한국문학의 고전으로서 널리 알려진다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위상 변화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 권정생, 『강아지 똥』, 세종출판사, 1974.
_____, 『몽실 언니』, 창작과비평사, 1984, 개정 4판 14쇄, 2015.
_____, 『초가집이 있던 마을』, 창작과비평사, 1986.
_____, 『점득이네』, 창작과비평사, 1990.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깊은샘, 2011.

2. 단행본

- 서기재, 『시카타 신과 전쟁아동문학』, 알피, 2017.
원종찬 편,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이철지 편, 『권정생 글모음 · 오물덩이처럼 똥글면서』, 종로서적, 1986.

3. 논문

- 강민경, 『「몽실 언니」에 나타난 고통의 양상과 그 극복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김상한, 『아이들의 삶에서 아동문학 다시 읽기: 『몽실 언니』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9,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김성진, 『아동청소년문학의 정전과 권정생의 한국전쟁 3부작』,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김영순, 『일본 전쟁아동문학의 쟁점』, 『창비어린이』 85, 2024년 여름호.
김창현, 『「몽실 언니」의 반이념적 주제 지향과 비극 정신』,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3,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
남우희, 『권정생 문학에 관한 기독교적—탈기독교적 비평』, 성공회대 신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박산향, 『권정생의 『몽실 언니』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인문사회과학연구』 15-2,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박춘남, 『권정생 한국전쟁 소년소설에 나타난 리얼리즘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서기재, 『패전 직후 일본 아동문학의 경향과 '전쟁아동문학』, 『일본어문학』 55, 일본어문학회, 2011.
서영채, 『운명애: 인문학 개념정원2』, 『작가들』 70, 2019.
선안나, 『몽실 언니의 페미니즘적 분석』, 『한국문예비평연구』 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안정규, 『평화신학의 전망에서의 권정생의 문학작품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엄혜숙, 『권정생 문학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원종찬, 『속죄양 권정생』, 『어린이문학』, 2000.11~12.
이근영, 『「몽실 언니」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삶』, 『한국아동문학연구』 28,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이상엽, 『니체, 허무주의와 운명애』,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000.
장여옥, 『권정생 동화 연구: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정혜원, 『한국동화에 나타난 '여자 어린이상' 연구—김경록, 손연자, 권정생의 작품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조미영, 「권정생 아동문학 연구: 죽음과 생명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조연수, 「지금 어린이 관점으로 『몽실 언니』 다시 읽기」, 『창비어린이』, 2024년 여름호.
- 진달래, 「권정생 '전쟁3부작'에 나타난 여성의 표상 연구—『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에 나타난 모성을 중심으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최지훈, 「권정생론—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사, 1991.
- 최희구,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전쟁수용 작품 『몽실 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하세가와 우시오(박종진 옮김), 「일본 전쟁아동문학에 없는 것」, 『창비어린이』 8, 2005년 봄호.
- 한양아, 「권정생 서시문학 연구—'시련'을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Mongsil sister』 and Amor Fati

Won, Jong C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qualities of classics that still exist today with emphasis on the new status of 『Mongsil sister』,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e status of 『Mongsil sister』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eriod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The novel depicts the tearful life of a young girl, Mongsil, who endures tremendous hardships due to the nation's division and war. Since it was serialized and published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Korea, it was subject to censorship and repression for a while. After the Democratic Protest in June 1987, however, it made a grand revival. Following its broadcast as a TV series in 1990, the novel sold more than one million copies and reached its 100th printing, furthe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masterpiece of children's literature in Korea through numerous critical reviews. However, today's young readers tend to view Mongsil merely as a symbol of 'endurance, devotion, and sacrifice' leading to criticisms that the novel no longer aligns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While such criticism is somewhat valid, 『Mongsil sister』 distinguishes itself from comparable works of Japan's children's literature of war through its politically 'subversive' character, which endows it with a unique historical value. Moreover, the main character, Mongsil, created by Kwon Jeong-saeng, embodies an active and self-determined attitude toward life, which can be described as 'Amor Fati'. This sets her apart from any passive and compliant characters who settles with the reality. Kwon sought to portray humanity rather than ideology, and as it

* Inha University Professor

tells the life of Mongsil who loves her fate despite all hardships, this novel, much like Yun Dong-ju's poem 「Prelude」, possesses a classical value that continuously resonates with readers of all times. At this point, the status of 『Mongsil sister』 had to be shifted again: although unfortunate, it is no longer entirely suitable as a recommended tex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haps it is time to remove the label of ‘children's literature’ from 『Mongsil sister』 for the novel's intended readership.

Key words : Kwon Jeong-saeng, 『Mongsil sister』, Amor Fati, Children's Literature of War, Historical Value, Classical Value